

# 빛에 눌린 청년... 10·20대 42% 급증

### 가구당 평균 7022만원...30세 미만 2385만원

### 전체 가구 생활비 25% 금융부채 원금·이자 갚아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대로 진입했다. 10~20대 청년층의 부채는 42%나 급증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이다.

1년 전 조사 때의 6719만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7022만원 중 금융부채가 4998만원, 임대보증금이 2024만원이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056만원, 신용대출 776만원, 카드대출 56만원 등이다.

부채 보유 가구의 비중은 63.2%다.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줄었다. 1000만~3000만원 보유 가구(18.4%), 1000만원 미만(17.5%), 1억1000만~2억원(13.3%) 순이다. 3억원 넘는 가구는 8.3%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균 부채가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524만원, 30대 6872만원, 60세 이상 5165

만원, 30세 미만 2385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41.9%로 가장 높았다. 10대 또는 20대 가구의 빛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사에선 1681만원이었다.

30대의 부채 증가율(16.1%)이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이 1.8~5.1%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분위별로는 최상위층인 5분위가 1억 6002만원, 4분위 8434만원, 3분위 5720만원, 2분위 3586만원, 1분위 1365만원이다. 증가율은 2분위(8.4%), 4분위(8.1%), 1분위(6.3%), 3분위(6.0%), 5분위(1.3%) 순이다.

자영업자 가구가 1억87만원(3.7% 증가), 상용근로자 가구가 8062만원(5.1%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가구가 2815만원(4.4% 증가)이다.

금융부채나 원리금 상환액을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20~30대는 지난해보다 부쩍 나빠졌다.



금융부채를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전체 가구가 121.4%로 지난해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부채가 5.9% 늘어난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2.4% 늘어난 데 그친 결과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이 2.0%포인트에 그쳤지만, 금융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66.8%에 달해 상용근로자(107.8%)나 임시·일용직(79.3%)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처분가능소득의 25.0%로 나타났다. 쓸 수 있는 돈의 25%는 금융부채의 원금·이자를 갚는데 쓰는 셈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이 2.4% 증가에 그쳤지만, 저금리 현상 등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3.8% 줄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30세 미만(0.9%포인트 상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협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29.83 (-42.54)
- ↑ 금리 (국고채 3년) 2.09% (+0.01)
- ↓ 코스닥 740.32 (-14.95)
- ↑ 환율 (USD) 1082.70원 (+1.80)



## 광주은행 3기 다문화교실 개강

### 내년 1월까지 문화수업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1일 광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천으로 선정한 20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3기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검사 프로그램과 보다 실용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직원이 직접 강의하는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배우는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검사 프로그램과 보다 실용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직원이 직접 강의하는 금융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 수업, 목공예 작품 만들기, 한국 전통문화체험,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수업을 받는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기아차 평창 올림픽 기간 홍보관 운영

### 포토존·게임존 설치

### 스팅어·스토닉 등 전시

기아자동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홍보관은 960㎡ 규모에 'BEAT PLAY'(평창에서 기아차의 또 다른 올림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조감도>

소프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등 동계올림픽 종목과 연계해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과 미니게임존을 갖추고 스팅어, 스토닉, 레이 등 기아차의 대표 차종을 전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구매 고객 및 온라인 이벤트 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올림픽 방문 경기관람과 기아 홍보관 투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초청 호스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아차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차량부분 공식 후원사로서 현대차와 함께 승용 및 승합차 2600여대, 버스 1200여대(4만7000여일)와 후원금을 올림픽에 지원한다.

기아차가 후원하는 유소년 야구유망주와 해외 탐방프로그램 참가자 중 선발된 128명은 올림픽 성화봉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 한전, 소외이웃 돕기 5억원

### 광주·전남 공동모금회 기탁...포항 지진피해 돕기도 5억 쾌척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은 21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에 5억원을 전담했다.

한전은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임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와 전남지회에 각 2억 5000만원씩을 전담했다.

한편, 한전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이번 달에 연탄 200만 장을 기부했으며, 포항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추운날씨에 주변의 힘든 분께 작은 보탬이라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은 21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재규 광주지회 부회장, 한국전력 김시호 사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정 전남지회 회장. <한국전력제공>

## 전남 10월 어업생산량 33% 증가

### 전년보다 1만1842t 늘어 4만7652t...전국 32.8%차지

지난 10월 전남 지역의 어업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0월 전남도 어업생산 동향자료에 따르면 총 생산량은 4만7652t으로 전년 동월 3만 5810t보다 1만1842t(33.1%)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해면어업이 1만3679t으로 전년 동월대비 5.9%(850t) 감소했으며, 전해양식어업은 3만3324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9%(1만2743t) 증가했다. 일반해면어업 중 생산량이 감소한 품종

은 젓새우류로 전년 동월대비 74.9%(2357t) 줄었다. 젓새우류는 주 산란기 이후 남해안 연안 해역에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연근해 자망어업의 조업 부진으로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전해양식어업 중에서는 양식 작황이 양호한 다시마류의 생산량이 70.3%(9064t) 증가했다.

한편 10월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은 전국 총 생산량 14만5284t의 32.8%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농협 전남본부 벼 직파재배 평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21일 벼 직파재배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과 참여농협 조합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농협의 벼 직파재배 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시작해 4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5월 16일 나주 동강 복룡들녘에서 파종 시연회를 시작으로 43개 농협 902개 농가 2477ha 규모의 논에서 직파(무논·건답) 재배를 실시했다.

또 전남농협은 벼 직파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파종에

서 생육, 수확까지 과정을 (사)한국직파협회에 의뢰해 컨설팅을 실시, 이날 평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벼 직파재배는 육묘단계를 거치지 않아 생산비를 20~25% 상당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확량과 품질은 기존 이앙법(육묘에 의한 파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벼 농사를 포기했던 무안 운남면 구일간척지에서는 가뭄극복 대안으로 건답직파를 실시해 1억44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